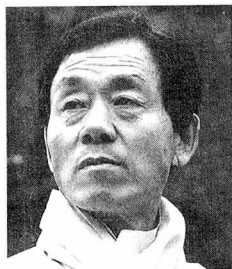


Essay

그 사람 고향이 어디여?



한 승 원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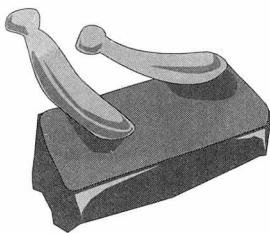
바람이 불고 빗줄기가 내리치고 눈보라가 몰아친다. 대지는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산다. 대지는 불평하지 않고 그 비와 눈을 품었다가 자기의 맨살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모든 것들에게 영양을 공급한다. 대지는 모든 것들에게 빼앗길 뿐 그들로부터 받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늘 넉넉하게 그들을 안아주고 품어 준다. 살아 있는 것들에게는 먹을 것을 대주고 그것들이 죽은 다음에는 살 속 깊이 받아들여 영원히 안식하게 하는 것이다. 대지에 밭을 디디거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대지에 큰 빛을 지고 산다.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수분과 여러가지 영양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이다. 수분과 영양소는 대지의 피다.

우리는 누구든지 어머니에게 큰 빛을 지고 있다. 모든 동물들은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열달 동안 헤엄을 치다가 동굴 같은 자궁을 통해 밖

으로 나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다. 젖은 흰색이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피인 것이다. 자식들은 모두 운명적으로 자기의 어머니를 확대하면서 자랐다. 젖이 없는 어미 거미는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에게 자기의 몸을 모두 뜯어먹고 자라도록 제공한다. 이때 그 어미 거미는 몸부림치지 않고 당하기만 한다.

고향은 우리들의 어머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자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자처럼 외롭게 되고 방황하게 된다. 지치고 괴로울 때 돌아가 날개를 접고 평화를 얻고 안주할 자리(동우리)를 잃어버린 새처럼 슬픈 신세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누구든지 고향에 큰 빛을 지고 있다. 우리는 고향의 자궁 속에서 태어났고, 고향이라는 동굴 속에서 나와 고향 산천의 모든 것들을 뜯어먹고 자랐다. 거기에서 축적한 영양소를 바탕으로 하여 타지에 나아가 출세를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늙어 기력이 쇠해지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 고향땅에 묻히고 싶어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삶을 사랑하여야 하고 그 삶을 사랑하려면 살아 있어야만 한다. 고향 사랑하는 것도 그와 똑같다. 가장 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기 고향을 사랑하여야 하고 자기 고향을 진실로 사랑하려면 참되게 살아 있지 않으면 안된다.

고향을 진실로 사랑하려면 참되게 살아 있지 않으면 안된다. 고향의 좁은 길을 넓혀주고 다리를 새로이 놓아주고 노인회관을 지어주는 것도 고향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다. 고향에 상수도 시설을 하여주고, 모교에 컴퓨터를 들여주고 피아노를 사주고 책을 사주는 것도 참으로 좋은 고향 사랑하기다. 고향에서 난 쌀을 먹어주고 고향에서 난 배추를 사 먹어 주고 고향에서 난 고추를 사주는 것도 고향을 사랑하는 훌륭한 방법임에 틀림없다.

고향의 사투리를 잊지 않고 구성지게 쓰는 것, 고향의 민요나 육자배기를 구슬프게 불러주는 것도 고향 사랑하기다. 아들 딸들을 데리고 고향땅을 여행하면서 그들에게 고향의식을 붙여넣어 주는 것도 가슴 뿌듯한 고향 사랑하기다.

타지 사람을 붙잡고 내 고향의 구석구석을 자랑하는 것, 가령 어느 산에 유명한 사찰이 있고, 어느 강 어느 바다에서 낚시가 잘 되고, 어느 지역의 어떤 음식이 맛있으며, 어떤 지역에 유서 깊은 무엇무엇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도 기막힌 고향 사랑하기다. 타지에서 내 고향 사람을 만나 반가워하고 그를 위하여 길 안내를 하여 주고 이런 저런 편의를 보아 주는 것도 고향 사랑하기다. 내 고향 땅에 어떤 재변이 생기면 달려가 위로하고 그 재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한 내 고향 사랑하기다.

바야흐로 지방 자치시대가 열렸다. 지금부터 고향은 자기의 가장 뚜렷한 상표가 될 터이다. 영광 사람들은 영광 굴비의 신용을 더욱 빛내야 하고, 나주 사람들은 나주 배의 신용을 더욱 공고히 하고, 완도·진도·장흥 사람들은 그곳의 김과 표고버섯의 신용을 보다 확고히 해야 하는 것이다. 여수와 목포의 해물들은 가장 신선하게 저장 가공되고 출하되어야 한다.



관광지에 오는 손님들한테는 그 고장의 인심이 후함을 보여 줌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뿌리고 가게 하여야 한다. 자기 고향이 어떤 곳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훌륭한 상표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고향 사랑하기다.

그보다 더욱 내 고향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새치기도 하지 말고, 신용도 잘 지키고, 복잡한 곳에서는 양보해 주고, 필요 없는 우김질도 하지 말고, 이웃의 어려운 일에는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조용하게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향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살인 사건, 강도 사건, 사기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대개의 사람들은 옆 사람에게, 「그 사람 고향이 어디여?」하고 물어본다. 그 사람의 고향이 이리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그래 어쩐지 그곳 사람 같더라!」하고 말한다. 못되게 행동을 하곤 하는 사람은 제 어머니 아버지와 형제들을 욕보이고 자기의 고향을 욕보이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누구인가가 착한 일, 훌륭한 일을 하였을 때에도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다. 그 사람 고향이 어디라고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 그래, 역시 그 고장 사람들은 다 그래!」하고 말을 하는 것이다.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고장의 사람들에게 대한 인식은 나빠지게 마련이다. 반대로 착하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는 고장에 대한 인식은 좋아지게 마련이다. 늘 착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의 고향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이다. 우리 고향이 진정으로 좋은 상표로 상승되었을 때 우리 고향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우리의 후손들은 취직도 잘 되고, 그들이 하는 사업에는 고객들이 별 때처럼 몰려들 것이다. 가장 참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자기 고향을 사랑하여야 하고 자기 고향을 진실로 사랑하려면 참되게 살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